

## 시무식 인사말씀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2022년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바랍니다. 2022년은 원자력산업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반세기에 걸쳐 원자력산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왔고,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경영혁신처장과 글로벌협력처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기둥 역할을 해 온 분들의 정년퇴임으로 우리 협회는 리더십 대체를 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과 원전해체 산업 지원업무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이 성과를 내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평생교육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대폭적인 인사규정 개정과 직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원전 공기업들의 직제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우리 협회가 대등한 위치에서 회원사와 업무 협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연령과 인사상의 갭(gap)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를 크게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별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분발을 기대합니다. 업무를 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금년 한 해도 만사형통하기 바랍니다. **KMIF**